

통제소재와 사회적 문제해결과의 관계

— 중년여성을 중심으로 —

이 형 초 최 정 윤

서울 백제병원 가톨릭의대 정신과학교실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통제 소재와 사회적 문제 해결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73명의 (38-54세) 중년여성에게 내외통제 척도와 사회적 문제해결 척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해결과 내외통제 특성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r=.44$ $p<.001$) 보였으며, 그 하위요소인 문제해결 지향척도와 문제해결 기술척도에서 각각($r=.33$ $p<.01$; $r=.37$ $p<.001$)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내외 통제 특성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에서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제해결의 모든 하위 요소에서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문제해결 기술척도(PSSS)가 문제해결 지향척도(POS)보다 더욱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소재의 차이에 따라 문제해결 양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통제집단이 외적 통제집단 보다 문제해결 상황에서 긍정적인 기대와 동기를 가지게 되고 적극적인 자세로 상황에 대처함이 밝혀졌다. 따라서 문제해결 상황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대처반응이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문제해결 기술을 학습시키는 것이 외적 통제자의 자기통제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동일한 상황에서 유사한 경험을 하면서도 개인에 따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한 그 경험에 따르는 결과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모든게 팔자 소관이다' 혹은 '세상일은 뜻하는데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노력한 만큼의 댓가는 반드시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향은 다를 것이다. 즉 모든 상황을 자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외부의 힘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통

제된다고 믿는 사람들로 크게 이분할 수 있다. 1966년 사회학습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Rotter가 내외통제 개념을 체계화시키고 측정가능한 개념적 도구로 만들었다.

한 강화 사건이 행동에 수반될 때, 그것을 전적으로 자신의 행동 결과와 무관한 것으로 지각하고, 그 강화가 운, 우연, 운명의 결과 혹은 힘을 가진 타인의 통제하에 있다거나, 그를 둘러싼 힘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에게 이렇게 해석될 때, 우리는 그것을 외재적 통제의 신념이라고

부른다. 반면 그 상황을 자신의 행동 혹은 '영속적인 특성의 결과'라고 지각한다면, 우리는 그가 내재적 통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p1)

여기서 '통제'의 의미는 실제적인 통제보다 '지각된 통제'이다. 지각된 통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스스로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 만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Rotter는 통제소재의 개념을 사용해서 환경에 대한 지각 및 행동결과에 대한 기대차이를 측정하였다.

Rotter의 이와 같은 제안이후 통제소재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행하여져 왔다. 특히 Denny & Frisch(1918)와 Husaini & Neff(1981)은 통제소재가 생활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신체적 안녕감의 매개자로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내적 통제자가 외적 통제자에 비해 보다 적응적이고 정신건강에 유리한 대처를 한다고 밝혀졌다. 내적 통제자는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반면 외적 통제자는 매일매일의 사건에서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Tanck와 Robbins(1979)도 통제소재가 생활의 문제와 긴장에 대한 대처전략에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Kobasa와 그의 동료들(1982)은 내적 통제자들은 주로 과제중심적인 대처를 하고 정서중심의 대처는 적게 한다는 것이다. 상황을 통제 가능하고 변화 가능하다고 지각하는 경우 문제중심의 대처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Krantz(1983)도 상황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 변화 가능하다고 지각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처에서 차이가 남을 밝혔다. 내적 통제자는 상황을 적응적으로 평가하고 그 상황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평가될 때 더욱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외적 통제자는 애매한 상황이거나 분명한 상황에서도 대처방식에 차이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대처보다는 감정적인 억압을 주로 사용하였다.

Butterfield(1964)는 내적 통제자일수록 좌절된 상황에서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자기비난

을 적게하는 반면 외적 통제자는 자기 비난적이며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함을 보고하였다.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믿는 사람들은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좋은 결과에 자신감을 갖는 반면 실패에 대해 수치감을 느끼지만, 일의 결과가 자신의 책임밖에 있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감정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Phares, 1976). 이러한 차이를 저자들은 성공경험에 따른 '매력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였다. Ducette와 Wolk(1972)의 연구에서도 외적 통제자는 과제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않는 반면, 내적 통제자들은 강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까이 강화를 지연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바는 내외통제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내외 통제특성이 부적응이나 정신병리와도 관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Levenson(1973)은 입원한 환자에게 내외통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증 환자들이 신경증환자들보다 우연이나 강력한 타인에 의해 통제될 것이라고 더 많이 기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Cash & Stack(1973)와 Pryer & Steinke(1973)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들은 지각된 통제가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치료적 개입을 통해 환자들의 기대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초기에 Rotter(1954)는 사회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치료의 목표가 환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Singer(1970) 역시 모든 치료에서 가장 목표가 되는 것은 자신 스스로에 의해 변화 가능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이 갖는 내외통제 신념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서의 반응이나 문제해결 양식이 달라질 수 있고 나아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개인적인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고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과 심리치료의 중요한 과제이다(Fretz, 1982). 문제해결 능력은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 상관관이 있으며, 정신병리나 부적응적 행동과는 부적상관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문제해결이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최초의 연구는 문제해결 능력이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요소라는 Jahoda(1953)의 보고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초기 연구들은 문제해결 기법에 중점(Spivack et al., 1976)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개개인 스스로 지각하는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Hepper & Peterson, 1982) Mischel(1981)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라고 스스로 규정짓는 경우, 매우 다양한 비합리적인 신념과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 결과 비합리적으로 높은 준거를 제시하여 대부분의 결과를 실패로 지각하고 결국 부정적인 자기 진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는 인지적인 내용과 인지적인 과정이 달라진다고 한다.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는 스스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나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는 문제중심적이지 못하고 빈번하게 자책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문제해결의 기술보다 인지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상황의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연구들은 D'zurilla와 그의 동료들이 만든 사회적 문제해결 모델을 기초로 이루어졌다(D'zurilla & Nezu, 1982, Nezu et al., 1989).

여기서 사회적 문제해결(Social problem solving)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일상의 구체적인 문제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적응적으로 대처하려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과정을 말한다(D'zurilla, 1986).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실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문제, 대인관계문제, 소집단 문제 크기는 사회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문제상황이라는 것이다. D'zurilla(1986)의 모델에서는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전

반적인 동기변인과 특별한 문제해결 기술로 구분하고 있다. 전반적인 동기변인인 문제해결 지향(problem solving orientation)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중요한 태도 및 신념 그리고 실제 문제해결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평가하는 태도를 결정하게 한다. 그러나 문제해결 수행을 측정하는 문제해결 기술(problem solving skill)은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성하며, 대안적인 해결책을 산출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한 의사결정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치료나 훈련 프로그램에서 결과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효과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한 개인의 문제해결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대나 지각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실제적인 대처기술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Nezu & D'zurilla(1989)와 Nezu & Perris(1981)의 연구에서는 약간의 적응장애에서부터 심한 정신병리에 이르기까지 문제해결 치료가 전략으로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Nezu(1986)는 우울증 집단에 문제해결 기술을 학습시키는 사회적 문제해결 치료의 효율성을 평가한 결과 우울증 증후가 감소되고 개인적인 통제 기대감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통제 소재에 따라 사회적 문제해결 양식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내외 통제성이 다른 연구변인들 특히 우울감이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전반적인 문제해결에 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외 통제 신념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나 실제적으로 정신건강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이나 상담에 직접적인 연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실제적인 동기와 수행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해결 척도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내적 통제자는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문제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문제해결 기

술면에서도 대안책을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내적 귀인을 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외적 통제자들은 일상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문제상황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동 경향성을 보일 것이다. 또한 문제해결 기술면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결과에 대한 귀인도 외부적으로 지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강남과 강북에 소재한 B여고와 Y여고 학부모인 중년여성 150명이다. 나이는 38-54세까지 범위였으며(평균연령 44세 표준편차 3.72), 학력은 중졸(14%), 고졸(54%) 전문대졸과 그 이상(32%)이었다. 150명의 피험자에게 내외통제 척도를 실시하여 상위 25%(12점 이상)은 내적 통제집단으로 하위 25%(8점 이하)는 외적 통제집단으로 분류하여 내적 통제집단 39명, 외적 통제집단 34명으로 총 73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평가도구

(1) 내외 통제척도

피험자의 통제소재를 측정하기 위해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1973)가 번안 수정한 Rotter(1966)의 내외 통제척도(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를 사용하였다. 우리 실정에 맞게 문항분석을 통해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91로 차재호(1973)는 보고하였다.

(2) 사회적 문제해결 척도

사회적 문제해결양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영미(1992)가 번안한 사회적 문제해결척도(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D'zurilla & Nezu, 1990)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문제해결 양식 척도는 총 7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두개의 주요 척도

와 7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두개의 주요 척도는 문제해결 지향척도(Problem Orientation Scale : POS)와 문제해결 기술척도(Problem Solving Skill Scale : PSSS)이다. 문제해결 지향척도는 인지, 정서, 행동의 3가지 하위척도가 포함되는데 인지척도(Cognitive Subscale : CS)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인식하려는 주의깊은 자세를 포함하며 일반적이고 안정화된 귀인, 기대, 평가 등을 포함한다. 정서척도(Emotion Subscale : ES)는 문제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는데, 부정적인 효과(불안, 우울 등)와 긍정적인 효과(열망, 희망)를 포함한다. 행동척도(Behavior Subscale : BS)는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자세와 문제해결을 지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등 회피하는 행동경향성에 초점 맞추었다.

문제해결 기술척도(PSSS)는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의 규정과 구성, 대안책의 산출, 의사결정, 해결방법의 수행과 확인 4가지 척도로 구성된다. 문제의 규정과 구성화척도(Problem Definition & Formulation Subscale : PDFS)는 문제와 관련된 실제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를 상세화시키고 해결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대안책 해결책의 산출척도(Generation of Alternatives Social Subscale : GASS)는 많은 대안책을 생각해내고 구체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의사결정 척도(Decision Making Subscale : DMS)는 여러 대안책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결법수행과 확인척도(Solution Implementation & Verification Subscale : SIVS)는 해결책을 수행하고 난 뒤에 실제적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하위 구성요소에 각각 10문항씩 총 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의 절반은 긍정적인 내용이며 절반은 부정적인 내용으로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완전히 그렇다'(4점)에 해당하는 5점 척도로 되어있다. 부

정적인 문항은 점수가 역으로 계산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을 잘하는 것이다. 신뢰도는 POS, PSSS, SPSI에서 Cronbach α 가 각각 .80, .87, .88이었다.

3) 자료의 분석방법

내외통제 소재와 사회적 문제해결 양식간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내적 통제집단과 외적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문제해결 양식에서 두 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하여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내외 통제 특성과 사회적 문제해결간의 전반적인 관계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단순상관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내외 통제 특성과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해결 양식 척도(SPSI)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r = .44, p < .001$). 하위척도인 문제해결 지향척도(POS)와 문제해결 기술척도(PSSS)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r = .33, p < .01$; $r = .37, p < .001$) 문제상황

표 1. 통제소재와 사회적 문제해결 양식간의 상관표

CS	ES	BS	POS	PDFS
.27*	.24	.28*	.33*	.25
GASS	DMS	SIVS	PSSS	SPSI
.37**	.36**	.33*	.37**	.44**

* $P < .01$ ** $P < .001$

CS: 인지적 요소, ES: 정서적 요소, BS: 행동적 요소, POS: 문제해결지향척도, PDFS: 문제의 규정과 구성화, GASS: 대안책의 산출, DMS: 의사결정, SIVS: 수행과 확인, PSSS: 문제해결 기술척도, SPSI: 사회적 문제해결 총점

표 2. 통제소재와 사회적 문제해결 양식간의 상관표

	내적 통제집단(N=39)		외적 통제집단(N=34)		
	M	SD	M	SD	
CS	24.82	3.89	22.82	4.66	3.97*
ES	26.69	4.83	23.79	6.19	5.02*
BS	29.97	4.51	26.73	6.10	6.75**
POS	81.48	10.01	73.35	13.88	8.39**
PDFS	24.41	5.42	20.58	6.57	7.40**
GASS	25.10	4.40	21.67	5.01	9.64**
DMS	25.95	4.19	22.94	4.92	7.94**
SIVS	24.97	4.43	21.61	4.49	10.28**
PSSS	100.43	15.73	86.82	17.71	12.08***
SPSI	181.92	20.96	160.17	23.72	17.29***

* $P < .05$ ** $P < .01$ *** $P < .001$

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보이게 되는 정서적인 반응을 측정하는 정서적 요소(ES)와 문제와 관련된 실제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를 상세화시키고 해결목표를 명확히 하는 문제해결 기술요소인 문제의 규정과 구성화 척도(PDFS)는 경향성은 있으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적 통제를 할수록 문제해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다 긍정적인 동기와 적극적인 해결 기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통제 소재별로 집단을 나누어 사회적 문제해결 양상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문제해결 양상의 하위척도 모두에서 내외통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제해결 지향척도 보다 문제해결 기술척도에서 더욱 유의미한($P < .001$) 차이를 나타내었다.

논 의

내외통제성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은 밝혀진 바이다. 그러나 내외통제성이 일상적인 문제상황에서 정신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문제해결 기술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Rotter의 내외통제 특성과 사회적 문제해결 양식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내외통제 특성과 사회적 문제해결 양식의 관련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해결과 내외통제 특성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r = .44$ $p < .001$)보였으며, 그 하위요소인 문제해결 지향척도와 문제해결 기술 척도에서 각각($r = .33$ $p < .01$; $r = .37$ $p < .001$)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하위요소인 정서적 요소(ES)와 문제와 관련된 실제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를 상세화시키고 해결목표를 명확히 하는 문제해결 기술요소인 문제의 규정과 구성화 척도(PDFS)는 경향성은 있으나 유

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내외 통제 특성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문제해결에서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제해결의 모든 하위요소에서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문제해결 기술척도(PSSS)가 문제해결 지향척도(POS)보다 더욱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적 통제 집단이 외적 통제집단에 비해 문제에 대한 해결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시각하고 실제 문제해결기술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Parkes(1984)가 내적 통제집단의 대처가 외적 통제집단 보다 더 적응적인데 특히 과제지향 행동을 주로 하고 정서중심의 대처는 적게한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이 문제해결 상황에서 보다 문제 중심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기존의 연구들(Nezu, Kalmer, Ronan, & Clavijo, 1986; Rotter, 1978)과 일치한다. 다시말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기대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사건에 문제해결 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통제소재와 관련된 개인의 일반화된 기대는 실제 문제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한다는 Rotter(1966)의 주장이 본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D'zurilla와 Nezu(1990)는 사회적 문제해결척도와 내외통제척도를 상관연구한 결과 POS척도에서 $r = .32$ 의 상관이 있었고 PSSS척도에서는 $R = .19$ 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 지향척도와 문제해결 기술척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은 내외통제 척도 자체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 되어서 실제 28개 문항의 Rotter 척도와는 문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다음은 피험자 변인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데 D'zurilla와 Nezu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중년여성들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년여성들은 대학생에 비해 인지적인 신념보다 행동적인 측

면의 대처가 더욱 중요하므로 인지적인 동기요소보다 실제적인 문제해결 기술요소에서 더욱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따라서 문제해결 상황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대처반응이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문제해결 기술을 학습시키는 것이 외적 통제자의 자기통제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해결에 관련된 상담이나 치료 장면에서 인지적인 측면의 자신감 배양도 중요하지만 앞서, 실제적인 문제해결 기법의 학습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내외통제 특성이 여러가지 정신건강 면에서 중요하다는 연구들은 많이 있어왔으나 실제적인 문제해결 장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앞으로 훈련 프로그램이나 치료적 개입에 실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점인데, 어머니의 문제해결 양식이나 세상에 대한 통제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어머니들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적절한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효과는 자녀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예상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피험자 수가 적고, 학력 수준별로 고르게 분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년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의 일반화에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40대 남자의 사망율이 가장 높다는데 그것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중년남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연구되어야 할 영역이라 생각된다. 셋째 문제해결 상황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제시하고, 상황에 따라 통제소재 특성에서 차이를 연구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영미, 김중술(1992). 우울증환자들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서울의대 정신의학.

-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1973). 내외 통제척도 작성. 한국 행동과학 연구소 연구노우트, 2, 263-271
- Butterfield, E.C.(1964). Locus of control, test anxiety, reactions to frustration and achievement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32, 355-370.
- Cash, T.F. & Stack, T.J.(1973). Locus of control among schizophrenics and other hospitalized psychiatric patient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87, 105-122.
- Denney, D.R., & Frisch, M.B.(1981). The role of neuroticism in relation to life stress and illnes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5, 303-307.
- Ducette, J., & Wolk, S.(1972). Locus of control and extreme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53-258.
- D'zurilla, T.J.(1986). Problem-solving therapy: A social competence approach to clinical intervention. New York: Springer.
- D'zurilla, T.J., & Nezu, A.(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nsultation and Clinical Psychology*, 2, 156-163.
- D'zurilla, T.J., & Nezu, A.(1982). Social problem solving in adults. In P.C. Kendall(Ed.),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Vol, 1, pp.201-274). New York: Academic Press.
- Hepper, P.P., & Peterson, C.H.(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 of personal problem 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66-75.
- Husaini, B.A. & Neff, J.A.(1981). Social cla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The role of life change events and locus of control. *Jour-*

- 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9-647.
- Johoda, M.(1953) .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health. *Social Casework*, 34, 349-354.
- Kobasa, S.C., Maddi, S.R., & Kahn, S (1982) . Hardiness and health :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68-177.
- Krantz, S.E.(1993) . Cognitive Appraisals and Problem-Directed Coping : A prospective Study of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636-643.
- Levenson, H.(1973) . Multidimensional locus of control in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397-404.
- Mischel, W.(1981) . A cognitive-social learning approach to asseemtn. In T.V. Merluzzi, C.R. Glass, & M. Genest(Eds.), *Cognitive assessment*. New York : Guilford Press.
- Nezu, A.M.(1986) . Efficacy of a social problem-solving therapy approach for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196-202.
- Nezu, A.M., Kalmar, K., Ronan, G.F., & Clavijo, A.(1986) . Attributional correlates of depression : An interactional model including problem solving. *Behavior therapy*, 17, 50-56.
- Nezu, A.M., Nezu, C.M., & Perri, M.G.(1989) . *Problem-solving therapy for depression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guideline*. New York : Wiley.
- Parke, K.R.(1984) . Locus of control, Cognitive Appraisal, and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655-668.
- Phares, E.J.(1976) . Locus of control in Personality. Morristown, N.J. : General Learning Press.
- Pryer, M.W. & Steinke, J.(1973) . Type of psychiatric disorder and locus of control.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 23-24.
- Rotter, J.B.(1966) .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 Rotter, J.B.(1978) .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problem solving and psychotherap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 1-10.
- Singer, E.(1970) . *Key concepts in psychotherapy*. New York : Random House.
- Spivack, G., Platt, J.J., & Shure, M.B.(1976) . *The problem-solving approach to adjustment*. San Francisco : Jossey-Bass.
- Tanck, R.H., & Robbins, P.R.(1976) . Assertiveness, locus of control, and coping behaviours used to diminish tens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3, 396-400.

The Relationship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Social Problem Solving

Hyung-Cho, Lee Jeong-Yoon, Choi

Seoul Baik Jae Hospital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on middle-aged women. Seventy three women (37-54 age=44, SD=3.72) completed locus of control scale and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zero-order correlation and analysis of variance. The results showed positive relation ($r=.44$, $p<.001$)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an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nternals and externals in social problem solving. This results suggested that internals have more positive orientation and active problem solving skill than externals on social problem solving.